

Pamify

2014 7월~9월 vol.06

위기를 기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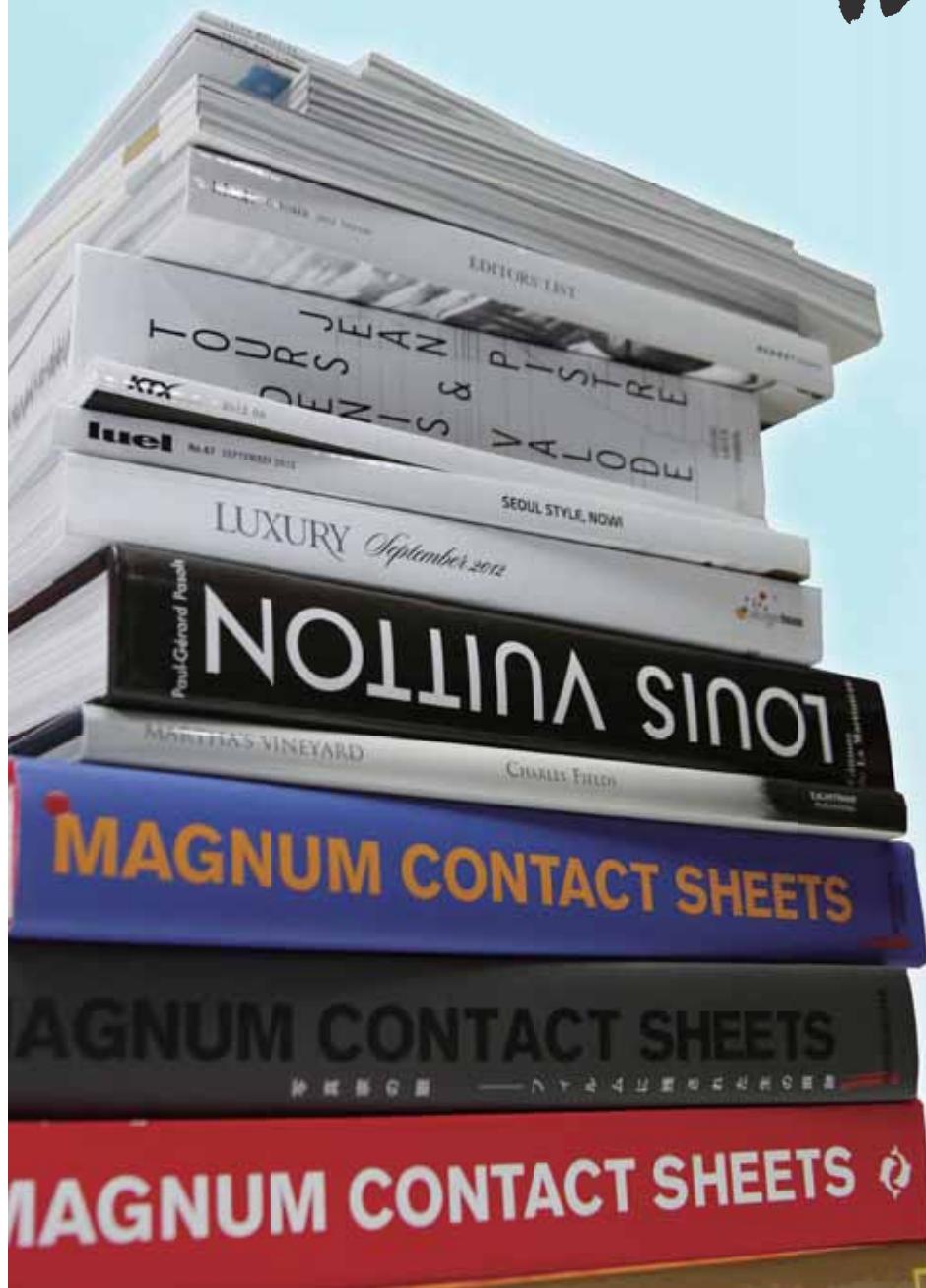
어느 아름다운 결혼식

팩캠 낚시 동호회

걷기 여행의 시작점, 올레



고객의 꿈이 만들면 명품이다



고객의 꿈을 인쇄하는
대한민국 인쇄 1위 팩컴코리아

팩컴은 품질, 가격, 납기 만족을 넘어
고객의 생각과 꿈을 인쇄하여
고객의 가치를 최상으로 구현한다는
고객 가치 경영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Pacom

Pacom AAP

MIRAEING

Pacom Books

BOOK JIHYERO

Book Make

BOOKMATE



vol.06

2014 July, August, September

CONTENTS

pacmin
pacminfam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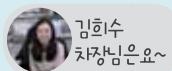


- | | | |
|----|--------|--------------------|
| 02 | 칭찬릴레이 | 김희수 유미애 박연수 양희영 |
| 03 | 북페어 | Book Expo America |
| 04 | 팩컴파풀 | 김경수 사장님 / 이종수 과장님 |
| 06 | 공감 | 전통과 변화 |
| 07 | 쉬어가는 곳 | 잊혀지는 것들에 대하여 |
| 08 | 팩컴파트너 | 어느 아름다운 결혼식 |
| 09 | 가족의 편지 | 인쇄사업본부 김기재 대리님과 가족 |
| 10 | 부서소개 | 수암 ABC |
| 12 | 힐링로드 | 걷기 여행의 시작점, 올레 |
| 14 | 여름이야기 | 여름이 오면 |
| 15 | 팩컴방문기 | 신임 사무관 Pacom 체험기 |
| 16 | 동호회 | 낚시 동호회 |
| 18 | 찰칵소리 | |
| 20 | 팩컴뉴스 | |

패밀리 칭찬릴레이



생산관리
김희수 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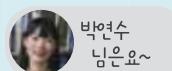
김희수

차장님은요~

생산관리의 팀장으로서 모든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사람입니다. 매일 인쇄 사업본부의 스케줄 및 작업지시서를 내려주며 작업 진행을 합니다. 지하에서 4층까지 하루에도 몇 번을 왔다갔다 하면서 작업이 잘 되고 있는지, 무슨 이상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 확인을 하는 습관 덕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최고의 인쇄 품질이 나올 수 있는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언제나 긍정적이고, 웃음을 잊지 않으십니다. 차장님의 호탕한 웃음은 주위 사람들까지 미소 짓게 만듭니다. 정말 매력적인 분이라 생각합니다.



경비직원
박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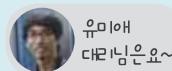


박연수
님은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밝은 미소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십니다. 더불어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서 출근길이 상쾌합니다. 겨울철 눈이 많이 오는 날이면 행여나 직원들이 미끄러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계속 눈을 쓸어 냅니다. 회사가 휴무일 때도 미친가지입니다. 회사에 주차 문제가 있을 때에는 상황에 맞게 대처를 잘 하십니다. 얼마 전에 회사 주차장의 구획선까지도 같은 동료 분들과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변에 긋은 일이 있으면 누가 보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니다. 본인이 맡은 업무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 임하시는 분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회사를 잘 부탁 드립니다.



팩콤AAP 관리본부
유미애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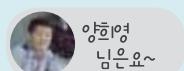
유미애

대리님은요~

한결 같은 스타일로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상냥한 웃음을 가지고, 직원들을 대하는 그 사람의 모습에서 성실함을 배웁니다. 한 직장을 변함없이 다니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녀의 성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조용하게 앉아 맡은 바 본인 임무를 다하고, 늘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더 아름다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면, 외면의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상냥한 웃음과 함께 직원들을 대하는 마음이 변치 않길 바랍니다.



PREPRESS사업부
양희영



양희영

님은요~

우선 인사를 너무 잘 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인사를 꼭 챙겨서 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하지 않은 인사는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이 사람은 아침에 인사를 하지 못 했으면 낮에 마주쳐 꼭 챙겨서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특성상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알 수가 없으므로, 이 분이 근무하는 곳에선 어떠한 사람이란 건 잘 모르지만 인사를 잘 한다는 것은 곧 그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 상대를 신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인관계 또한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이면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이고, 뛰어난 인재라 확신하므로 양희영 사원을 칭찬합니다.



인력 분포가 얼마나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팩컴 코리아는 199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BEA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철성 부장님과 저 조원근 사원, 얼마 전 새로 Marketing Manager로 들어오신 David Kim 그리고 미국 현지에 계신 Jerry Jee (SIPA 지부장님), 항상 열심히 창조팀의 영업과 고객의 소통을 맡고 계신 Lawrence Dagadu와 Sabra Chili 이렇게 총 6명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팩컴은 이번 BEA에 단독 부스로 참가하여 팩컴에서 인쇄하였던 책들을 전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팩컴 부스에 전시된 책에 관심을 보이는 잠재고객들에게 팩컴을 소개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존 고객들이 얼마나 소중한 재산이며 이들에게 더욱 양질의 책을 제공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으며, 팩컴 부스에 전시된 책들을 보고 감명 받는 잠재고객들을 보면 정말 팩컴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번에 만났던 잠재고객들을 최대한 많이 팩컴의 신규고객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앞으로 더욱 인쇄에 대한 지식 습득을 통해 진정한 인쇄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원근 joeel@gopacom.com

2014 Book Expo America



이번 BEA에는 1,000여 개의 출판 업체 및 관련 단체 등이 참가하고 700여명의 저자가 참석하였습니다.

BEA는 출판관련 종사자 모두를 위한 행사가 되어야 한다는 데 큰 비중을 둔다고 합니다. 전시자들은 출판사, 비서적 관련사, 기술 상품 및 서비스 관련사로 나뉘고, 참가자들은 북셀러, 리테일러, 도서관 사서와 수집가, 판권 전문가 그리고 출판 산업 전문인들과 바이어 등으로 나뉘는데 이를 통해 미국의 출판 산업과

위기를 기회로 바꾼 김경수 사장님을 만나러 갑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흔히 그들의 땀과 노력은 간과한 채 현재의 모습만을 보며 부러움을 표하고 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여다 보면 한 가지 공통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행일치(思行一致)'입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치열하게 노력하며, 이를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는 것! 이것이 그들을 성공으로 이끈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사람이 CEO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팩컴코리아 입사 당시 김경수 사장님의 이력을 접하고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경수 사장님은 역사를 전공하고 교육자의 길로 들어서려다, 부양할 가족이 생기면서 '성인문화사'에 입사했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인쇄와 관련하여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으나, 13년 동안 해외영업부에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선진 시스템을 접하고, 외국 업체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인쇄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해야 한다는 확신과 더불어 인쇄야말로 모든 것을 걸 수 있을 만큼 가치 있음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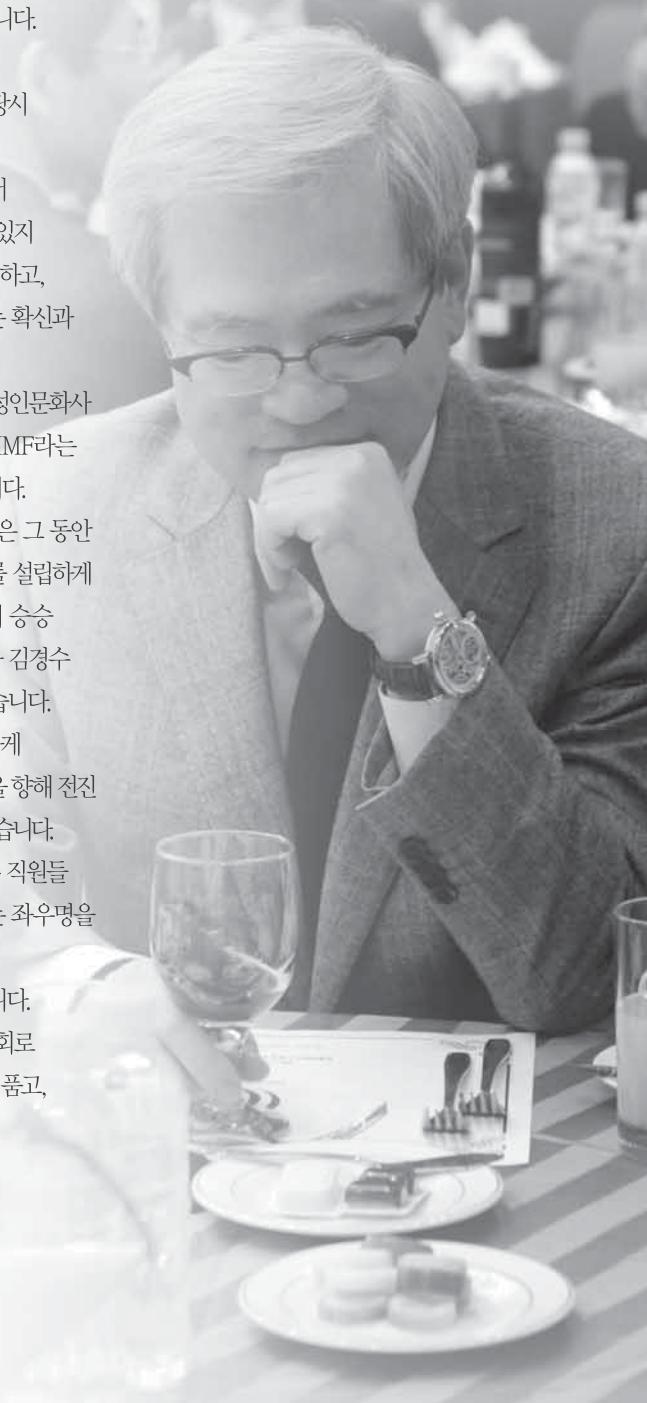
우연은 필연이 되어 1992년 해외에서 6개월간 파견 근무를 하게 됐고, 93년 말부터는 성인문화사 현지 법인의 책임자로서 6년을 현지 파트너와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97년 대한민국은 IMF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맞게 됐는데, 이때 성인문화사도 부도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회생을 위한 모두의 노력으로 법정관리가 가능했고, 그 과정에서 김경수 사장님은 그 동안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1999년 10월 인쇄물 수출전문업체인 '팩컴코리아'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팩컴코리아 설립 이후 '300만 불, 500만 불, 1000만 불 수출 텁'을 수상하며 승승장구했지만, 성인문화사는 법정관리 지속이 어렵고, M&A 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와 김경수 사장님은 인쇄산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를 인수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했습니다.

그 후 성인문화사를 인수했고, 이후 팩컴코리아는 국내 최대 인쇄물 제조회사로 발돋움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수 사장님은 팩컴코리아를 설립할 당시부터 최고가 되는 것을 목표로 꿈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팩컴 가족들 모두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2000만불 수출 텁'도 이루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인쇄업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경수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열정, 도전, 창조, 사랑' 네 가지를 강조하며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 라는 좌우명을 되새기며 꿈을 현실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경수 사장님은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잡아 국내 인쇄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팩컴인들 모두가 한 뜻으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 위기라고 느끼는 지금 순간도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성공스토리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꿈과 열정을 품고, 팩컴코리아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우리 모두 사행일치(思行一致) 합시다.

주선영 sunyoung@gopacom.com



재단의 대표 이종수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1층에 가면 많은 분들이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그 중 재단기 앞에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품고 계시는
이종수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Pacom에서 근무 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이 분야 업무를 시작한 지는 23년이 되어가지만, 중간에 다른 회사로 이직 했다가 다시 Pacom의 연락을 받고 되돌아 온지는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전 회사가 규모도 작지만, 거리도 멀어서 힘들던 차에 우연히 다시 같이 일하자는 연락을 받게 되어 바로 Pacom으로 되돌아 오게 되었습니다.

재단 업무를 유심히 지켜보면 인쇄물을 보고 쉽게 사이즈 계산하여 재단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노하우라…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은 없고, 그냥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랜 경험의 끝에, 인쇄물이나 기타 사이즈만 들어도 바로 여분 계산하여 원하는 사이즈로 재단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기계를 다루다 보면 다치시는 경우가 있지만, 재단의 경우는 특히 칼날을 교체하거나 재단하는 업무에서 위험해 보여요.

예전의 경우에는 인쇄물이 옆의 기계로 움직여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인쇄물도 손으로 정리하고, 재단한 것도 직접 다 옮겼기 때문에, 용지 무게가 만만치 않아 허리도 통증을 동반하고 손도 많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단물을 팔레트까지 기계가 자동으로 옮겨 주기 때문에 많이 편해졌지요. 다만 칼날 교체할 때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쉽게 베이거나 위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Pacom에서 동안을 찾으라 하면 과장님도 그 중 한 분으로 뽑히시는데요, 혹시 동안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음… 타고난 유전이라고 할까요? ㅎㅎ 특별히 관리 하는 것이 없습니다.

유전이라 하시면.. 따님도 동안 외모를 물려받았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아직 나이가 어리다 보니 동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랑스러운 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관리하시는 것 없이 동안 외모 유지라니... 많은 분들의 부러움을 받을 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인터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신다면?

음.. 그냥 우리 가족들이 지금처럼 아무 사고 없이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짧지만 이종수 과장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글로 한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 바라며,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이운정 jody_lee@gocom.com



전통과 변화 사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북메이크에서 일을 시작한 지 이제 겨우 넉 달이 되어 갑니다. 처음 이 곳에 왔을 때는 무척 설레는 마음과 함께 새로운 생활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는 일도 조금 익숙해지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변화를 겪는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인상 깊게 본 영화, '홀라 걸스'를 소개하려 합니다. 가족이 함께 보기에도 부담 없어서 분명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965년 일본의 탄광촌 이와키시가 배경입니다. 에너지 소비가 석탄에서 석유로 바뀌면서 탄광은 줄줄이 문을 닫습니다. 마을을 살리기 위해 '죠우방 하와이안 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요시모토 부장은 마을 사람들의 반대에도 꾸준



하게 센터 건립을 밀어붙입니다. 탄광촌인 마을을 하와이처럼 바꿔 관광 사업을 시작하자는 것이죠.

주인공 기미코는 친구 사나에가 들고 온 '하와이안 댄서 모집' 광고지를 보고 함께 지원합니다. 많은 소녀들이 댄서 모집 설명회에 참석하지만 배꼽을 드러내고 엉덩이를 흔드는 홀라춤을 보고 모두 기겁해 도망칩니다. 결국 기미코와 사나에, 아버지를 따라온 사유리, 중년 여성인 하쓰코 이렇게 넷만 남아 홀라춤을 추기로 합니다. 얼마 뒤 도쿄에서 온 미도카 선생님이 이들의 홀라춤을 지도합니다. 기미코는 어머니의 반대 때문에 아예 집을 나와 댄스교습소에서 먹고 자며 생활합니다. 그 뒤 마을이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자 이를 안타까워 하던 소녀들이 댄스교습소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홀라댄스팀이 꾸려지고, 홀라댄스팀은 연습을 마친 뒤 '죠우방 하와이안 센터'를 홍보하기 위해 순회 공연을 떠납니다. 하지만 댄스팀은 아직 춤 실력이 부족해 만족할 만한 공연을 하지 못합니다. 미도카 선생님은 소녀들에게 못하면 못하는 대로 서로 감싸고 힘을 낼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댄스팀은 용기를 얻어 공연을 거듭할수록 자신감을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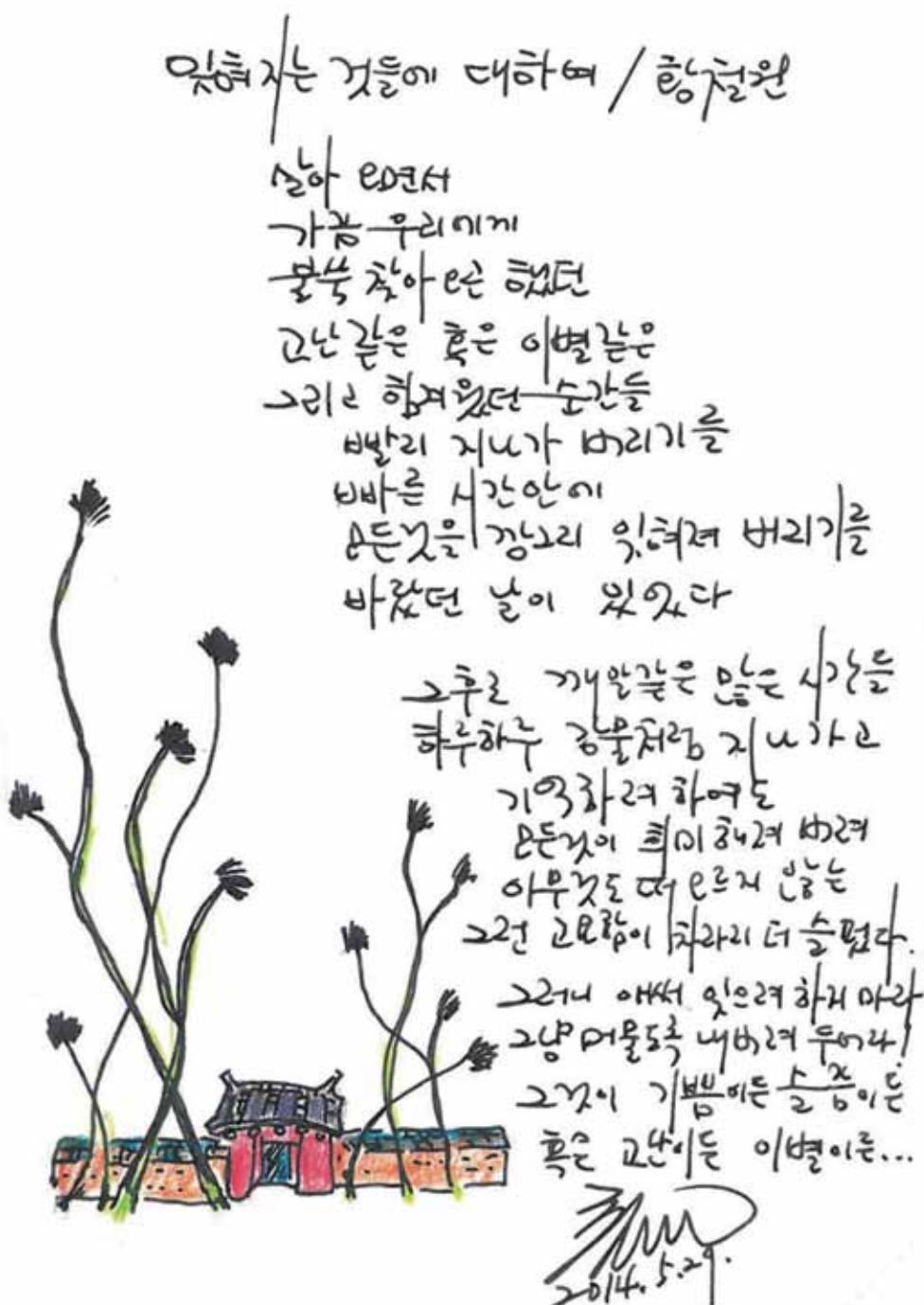
그러다 탄광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사유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늦게 마을로 돌아온 사유리와 미도카 선생님에게 부모의 임종을 지키는 일보다 춤이 더 중요했나며 모진 말을 퍼붓습니다.

하와이안 센터에도 일이 생깁니다. 센터 안에 옮겨 심은 야수가 추위에 죽어갔던 것이죠. 센터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난로를 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들은 척도 안합니다.

기미코의 어머니는 댄스에 열중하는 기미코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을의 새로운 시대를 열지도 모를 젊은이들의 노력을 난로 때문에 포기시킬 수 없다며, 마을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보면 '전통'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놓지 못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끝내 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필요한 순간마다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영화에서 '하와이안 센터'는 젊은 세대들이 낙후된 마을을 되살리고자 하는 처절한 노력을 대변하는 매개체입니다. 과연 하와이안 센터는 무사히 문을 열고, 댄스팀은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직접 영화를 보며 확인해보세요.

이가진 leegajin@gopacom.com





어느 아름다운 결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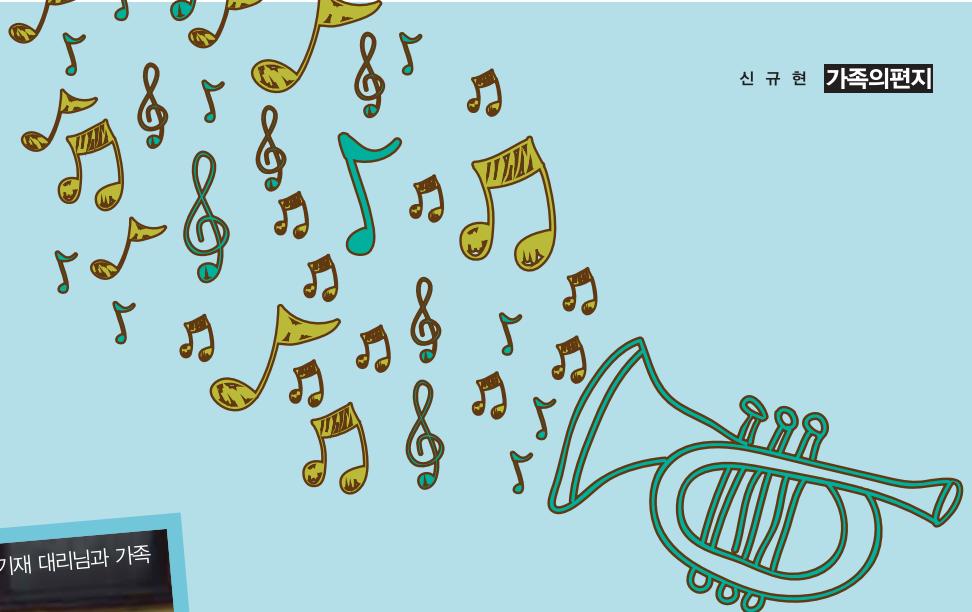
팩컴 세일즈맨

로렌스 다가두(Lawrence Dagadu) 씨,
며느리 엘리샤

2014년 4월 26일 화창한 봄날,
로렌스 다가두(Lawrence Dagadu)씨
가족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아름다운
행사가 열렸다. 이날 중남미 도미니카
공화국의 아름다운 섬에서 그의 맏아들인
베누아 다가두 (Benoit Dagadu) 가 사랑하는
연인 엘리샤 (Alysia)와 결혼식을 올린
것이다. 그의 아들 다가두 씨는 현재
미합중국 해군 중위이며 신부 엘리샤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그들은 결혼 후
머릴랜드에 거주할 계획이다.

다가두 씨는 그 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의 말씀, 사랑을 보내주신 팩컴의
김경수 CEO님과 모든 팩컴 가족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팩컴에서 일한 지난 9년간 늘 감사한 마음
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으며,
팩컴에서는 훌륭한 직원으로 집에서는
자랑스런 남편으로 또 아빠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팩컴의 세일즈 맨으로
역동적으로 일하고 있다.

사랑하는 아빠께***



지금까지 한 회사를 꾸준하게 다니고 계신 아빠는 어느덧 300년이 다
되어 가는 거 같습니다. 청년 때 입사하여 지금의 업무를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토끼 같은 팔들을 셋이나 두고, 이전 그 팔들이 벌써 22살,
20살, 18살... 가족을 위해 막내를 낳았습니다. 일하는 일상을 보내신 우리아빠
~ㅎ~하고 지쳐도 업무와 우리 팔들을 보면 힘이 난다고 말 하시며,
한 없이 꽃을 사랑을 주셨던 아빠... 아빠를 만나게 된 건 세상에 둘도
없는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날 아빠와 같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할 때, 아빠가 말했다. 늘어

보이시고 힘들어 보이시는 모습에, 왜 이제서야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게 된 건지 마을

한 컨트리 한 없이 아파 왔었습니다. 아빠는 항상 변함없이 젊고 드든한 버팀목이 줄곧 있었는데...

20살 성년이 되어 유통이라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이렇게 하루 잠시 일하는 것 조차도 힘들어서 하기 싫고 가기 싫었던 때가 많아 투정도 부렸는데, 하루 운동을 그것도 300년 동안은 단 한 번도 회사에 가기 싫다는 말을 하신 적 없이 일 해오신 아빠를 생각하니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어렸을 적, 주말마다 가족끼리 놀고 있기도 하고, 외식도 하며 즐겁게 놀며 시간을 보낸다고 자랑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왜 우리 가족은 다른 가족처럼 놀고 있지도 외식도 없어?' 시골만 같았던 아빠는 왜 우리와 놀아주시지 않고 회사만 가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웃면서 놀려 가지고 땠을 저를 보고,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미안해 하셨을지... 남들과 같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너희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부모의 역할을 다한 거라고 했던 말을, 이제야 크고 나니 알게 된 거 같습니다.

평일에는 가족을 위해 회사 일에 헌신에 최선을 다하시고, 수는 날엔 부모님을 찾아보아 자식 된 도리를 다하시고, 아빠의 개별 시간은 조금도 주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건강한 먹거리 를 먹게 하고 싶으신 마을 농사까지 지으시고, 언제나 가족들 걱정 뿐만 아니라 아빠였는데, 이런 아빠를 생각하는 저같은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팔들이 초등학교 운동회와 학예회, 그리고 출입식을 오고 싶어도 아빠는 회사 일로 인해 참석을 포기 하셔서 다만 했던 아빠. 자신을 위해 사시고, 하고 싶으신 것들이 많던 텐데도 많은 것을 포기하고 생활 하셔서 다만 했던 아빠... 이전 아빠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생각할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이 나고 합니다. 커가면서 매 순간 순간 아빠의 회사에 저는 감사함을 느끼고, 거듭 배워 나갑니다. 지금까지 아빠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보보기로 삼아, 나중에 아빠와 같은 그런 좋은 부모가 되겠노라 다짐해 봅니다. 겉으로 무뚝뚝해 보여도 알고 보면 아교도 많고 인정도 많고 팔바보, 아내와 보이는 우리아빠.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아빠♥♥~

수암 ABC

햇살이 밝은 여름의 어느 날 팩컴코리아 수암 공장에서,
이르게 찾아온 더위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닦으며
분주히 작업하는 직원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A동은 정합작업, 벽걸이·탁상용 자동바인딩 작업,
랩핑 작업, 포장 및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살갑게 잘 챙겨드리는 친한 며느리 임영임 사원.
뛰어난 음식솜씨를 자랑하는 정준실 사원.
서로를 칭찬해주는 모습에서 10년 가까이
팩컴 안산 공장과 함께해온 세 친구의
우정이 얼마나 돈독한지 느낄 수 있었어요.

A동의 대장님,
구유순 과장님!
남편분과 함께 1주일에
1번은 꼭 산에
오르시는 산 마니아 구유순
과장님에 대해 다른 사원 분들이
여쭤보니, 일을 너무 잘하시고 이해력과
업무 수행 능력이 뛸라, 다른 사원 분들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라고 너스레를 떨며
칭찬해 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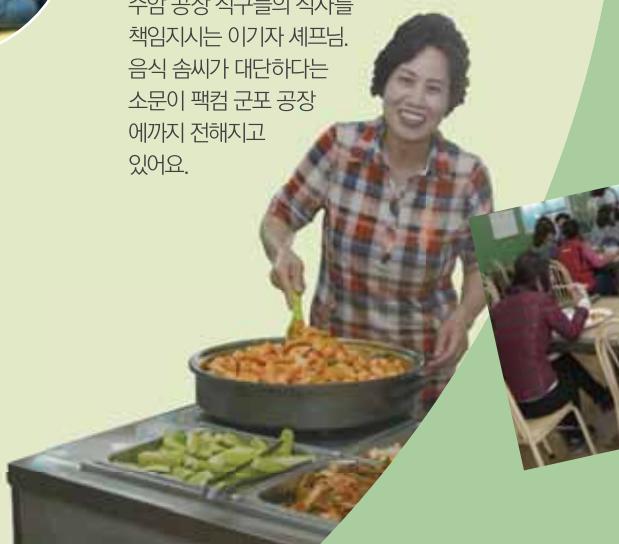
과장님과 사원들은 종종 1박 2일로
단합대회를 떠나는데, 5월 연휴 때는
과장님의 친동생이 하시는 가게에서
함께 맛있는 식사를 즐기며 친목을
다졌다고 해요.



인산 공장의 귀여운 막내
김영환 특례병.
특례병이 된 후 5kg이
빠졌다고 해요!!

소녀 같은 수줍은 미소의
박수엽 사원 얼마 전
파님께서 오랜 노력 끝에
아이를 낳아 드디어 할머니가
되셨다고 조근조근 자랑해
주셨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동안이세요!

수암 공장 식구들의 식사를
책임지시는 이기자 세프님.
음식솜씨가 대단하다는
소문이 팩컴 군포 공장
에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B동은 정합작업, 수동타공 작업, 랩핑작업, 중철(오사고, 하이
델)작업, 접지 작업, 보드타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슬 땀을 흘리시며 힘들게 일하고
계신 박범우 과장님.



안산 공장 강아지들의 어머니.
문순희 사원.
안산 공장에는 4마리의 개가 있죠?
모든 직원 분들이 이 개들을 아끼고
돌봐 주시지만, 특히 문순희 사원은
집에서 직접 미역국을 끓여 오시거나
개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해서 먹이로
챙겨주고 계십니다.

수암 공장에
들어서면 나무
로 만든 집에서
누런 개 한 마리가
얼굴을 내밉니다.
너무 순해서 도둑으로부
터 수암 공장을 지켜줄 수
있을지 걱정스러울 만큼 친근하게 얼굴
을 부비는 진돗개를 지나쳐 들어오면, 수암 공장
사무실 뒤에 세 마리의 개가 느긋한 표정으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습니다.

시종일관 해맑은
미소를 보여주신
성점순 사원.
최근 3kg 빠지셨다고
즐겁게 자랑하시다가,
사보에 자녀 편지 코너에
응모하면 소정의 식사 상품권이
증정된다는 것을 들으시곤 눈을 반짝반짝
빛내셨어요. 다음 호에 기대할까요!



C동은 트원링 생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C동에는 이승우 과장님과 김구례
사원 둘 뿐이지만, 팩컴에서 쓰이
는 트원링과 와이어콤(Wirecomb)
에서 판매되는 링들을 제작하고
있어요.



걷기 여행의 시작점, 올레~

올레길은 숲길, 바닷길, 소나무길, 마을을 지나치며 걷는 자만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제주도의 또 다른 얼굴을 마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걷기 여행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나도 걷기 여행에 동참 했다. 드라이브로 빠르게 길을 스치는 것이 아니라 내 속도와 눈높이에 맞춰 마주 하는 풍경들을 접하는 데에 걷기 여행의 매력이 있다. .

대한민국 걷기 여행의 열풍을 처음 일으킨 곳, 제주도 올레길로 향했다. 제주도 걷기 여행길을 ‘올레’라고 부르는데, 올레란 ‘집에서 거리까지 나가는 작은 길’을 뜻하는 제주방언이다. 현재 21코스까지 개발되었는데, 나는 가장 사랑 받고 있는 7코스를 선택했다.

7코스의 시작은 외돌개이다. 7코스 시작점에 준비된 도장을 종이에 찍으며 올레 여행을 시작했다. 외돌개는 제주 관광명소이고 대장금 촬영현장으로 알려지면서 관광객이 늘고 있다. 150만년 전에 화산이 폭발할 때 용암이 분출하여 굳어진 기암으로 바다에 외로이 서 있는 바위라 하여 외돌개란 이름이 붙여졌다. 외돌개





가 잘 나오는 사진 명소에서 인파를 뚫고 사진을 한 컷 찍고 발걸음을 옮겼다.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소나무 숲길을 걷다 뒤를 돌아보니 이미 걸었던 길이지만 그 절경이 새삼 감탄을 자아낸다. 제주도는 중간중간에 야자수 나무들이 있어서 걷는 내내 아국적인 풍경을 느낄 수 있다.

30분쯤 걸으면 ‘돌베낭길’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은 상록수가 울창한 숲으로 산책로 아래로는 기암절벽이, 동쪽으로는 문섬과 새섬, 남서쪽으로는 범섬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길이다. 문섬이 내려다 보이는 길목에 예쁜 카페가 자리잡고 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자연스럽게 카페로 들어서니, 카페 마당에는 여러 조각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휴식의 기쁨을 더한다. 외돌개에서 돌베낭길을 지나고부터는 관광객이 줄어 혼잡하지 않게 올레길을 즐길 수 있다. 범환포구에 다다르면 멀리서 보였던 범섬이 코앞으로 다가온다. 탁 트인 범섬을 감상할 수 있는 곳에 ‘잠녀 숨비소리’란 음식점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곳은 범환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해녀들이 직접 잡은 소라나 명게 등 해산물을 맛볼 수 있다. 역시 이런 명당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참소라회 한 접시 뚝딱 해치우고 다시 길을 나섰다. 이곳에서 운영하는 해녀 체험장이 있는데 참소라잡기, 성게잡기, 전복 잡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범환포구를 지나니 범섬이 시야의 뒤쪽으로 물러나면 지금까지 잘 정비된 길이 아닌 해안 옆 올통 불퉁한 바위길을 만나게 된다. 오르락 내리락 바위를 걸으면 험한 길이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코스가 길지 않아 그리 힘들지는 않다. 주변에 낚시꾼들이 많은 걸 보니 여기가 고기잡이 명당이 아닌가 싶었다. 비취빛 바닷길을 지나 숲길을 통과하여 마을에 다다르니 오늘의 목적지인 강정포구에 어느덧 닿아 있었다. 7코스의 종착점은 월평마을이나 강정마을 해군기지로 여기 사는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어 이곳에서 올레 여행을 마무리 했다.

올레길은 숲길, 바닷길, 소나무길, 마을을 지나치며 걷는 자만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제주도의 또 다른 얼굴을 마주 할 수 있어 행복했다. 올레길 중간중간에 파란색 화살표시가 끊임없이 있어 초행길이지만 어렵지 않게 걸을 수 있고, 쉼터들이 잘 마련되어 있어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힐링여행을 즐길 수 있어서 추천하고 싶은 길이다.

올레 7코스

난이도 : 중

거리 : 14.2Km (4~5 시간)

제주올레 사이트

<http://www.jejuolle.org>

주선영 sunyoung@gopacom.com



여름이 오면

여름에 냉면만 먹을 순 없잖아요? 시원하게 국수 말아드세요~



초계국수

재료 : 국수(중면) 150g, 닭가슴살 1개, 오이 1/6개, 무절임·백김치 1/3컵씩, 통깨 1/2큰술, 식초 1큰술, 연겨자 1작은술, 양지머리 육수 1L(양지머리 500g, 무 150g, 양파 1/4개, 대파 1대, 마른 고추 1개, 마늘 7쪽, 생강 1/2톨, 물 2.5L), 동치미 국물 1L



김치말이 국수

재료 : 국수(소면) 100g, 물김치 2컵(배추 1통, 고춧가루·설탕 2큰술씩, 대파 1대, 마늘 10쪽, 배·양파 1/2개씩, 멸치액젓 3큰술, 생강 1톨, 굽은소금 1/2컵, 물 1L), 삶은 달걀 1/2개, 김가루·통깨·참기름 약간씩



비빔국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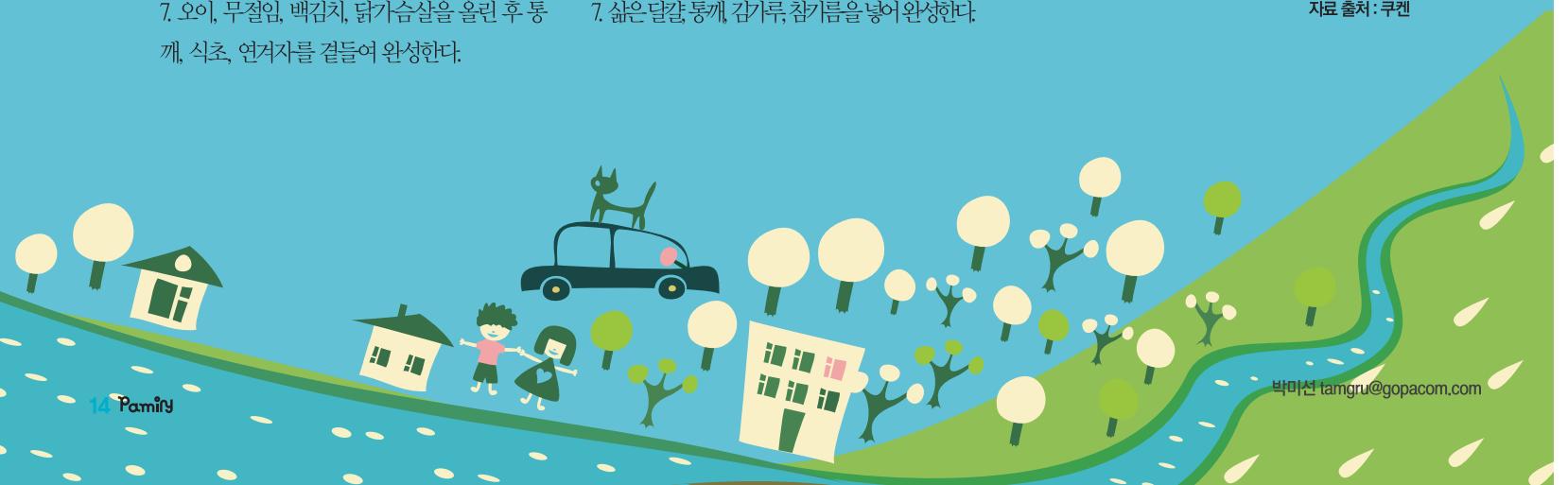
재료 : 국수(중면) 150g, 오이·양파·배 1/4개씩, 백김치 1/4포기, 통깨 약간, 비빔 소스(사과·배 1/2개씩, 오이 1개, 고추장 4큰술, 다진 마늘 2작은술, 설탕 1큰술, 식초·올리고당 2큰술씩)

1. 양지머리는 전날 물을 넉넉히 부어 반나절 정도 뜯물을 제거한 후 깨끗이 씻는다.
2. 냄비에 양지머리 육수 재료들을 넣어 끓고 하게 3시간 정도 끓인다.
3. 끓인 육수를 체에 거른 후 동치미 국물과 섞어 냉장고에 시원하게 보관해 육수를 만든다.
4. 오이는 얇게 채썰고, 무절임과 백김치는 한입 크기로 썰고, 닭가슴살은 끓는 물에 삶아 잘게 찢는다.
5. 끓는 물에 중면을 넣고 삶은 후 찬물에 헹군다.
6. 그릇에 면을 담고, 육수를 붓는다.
7. 오이, 무절임, 백김치, 닭가슴살을 올린 후 통깨, 식초, 연겨자를 곁들여 완성한다.

1. 배추는 반으로 갈라 굽은 소금을 골고루 뿌려 절인 다음, 물에 행궈 물기를 제거한다.
2. 김치통에 물을 담고, 고춧가루를 면보에 넣고 물에 담가 색깔을 낸 뒤 건져낸다.
3. 파, 마늘, 배, 양파, 생강, 멸치액젓, 설탕을 넣고 잘 섞은 뒤 배추를 넣고 하루 이상 숙성시켜 물김치를 완성한다.
4. 배추 물김치를 한입 크기로 썬다.
5. 끓는 물에 소면을 넣고 삶은 후 찬물에 헹군다.
6. 그릇에 면을 담고, 배추 물김치와 김치국물을 넣는다.
7. 삶은 달걀, 통깨, 김가루, 참기름을 넣어 완성한다.

1. 미서에 사과와 배를 껍질과 씨를 통째로 넣고 곱게 간다.
2. 새 미서에 오이를 넣고 곱게 간다.
3. 나머지 비빔 소스 재료를 모두 넣고 섞은 후 하루 동안 숙성시킨다.
4. 오이, 양파, 배는 얇게 채썰고, 백김치는 한입 크기로 썬다.
5. 끓는 물에 중면을 넣고 삶은 후 찬물에 헹군다.
6. 그릇에 오이와 양파를 깔고, 그 위에 면을 올린다.
7. 면 위에 배를 올린 후, 그 위에 비빔 소스와 통깨를 뿌려 완성한다.

자료 출처 : 쿠肯



신임 사무관 Pacom 체험기

지난 5월 19일~5월 23일 까지 5일에 걸쳐 신임 사무관들이 Pacom에서 업무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 분들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5/19, Pacom의 업무 체험을 위해 신임 사무관 10명이 회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신임 사무관은 5급 공무원으로서, 최근 바뀐 정책에 따라 현장 업무 체험을 위해 6개월의 실습 기간과 1년의 지방 연수를 마친 뒤에 부서 배치를 받는다고 합니다. 6개월의 실습 중 현장 체험은 회사 추첨을 통해 배정 받아 체험을 하게 되고, Pacom을 방문하였던 사무관들 역시 추첨을 통해 Pacom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Pacom에서 체험한 곳은 무선, 양장, 수작업 라인이었는데요, 양장의 경우는 유독 무겁고 두꺼운 책들이 많고, 수작업 라인은 작지만 세밀한 작업을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5일의 체험 기간 동안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막연히 인쇄 업계 회사라고 알고 있던 사무관들 중에서 일부는 “인쇄 분야 회사라서 규모가 작을 것이라 예상했었는데, 예상과 다르게 큰 규모와 해외로 많은 책을 수출한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책 한 권이 간단히 인쇄하고 자르고 붙여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책마다 많은 공정을 거치며 많은 손을 요구하는 까다로움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열심히 공부한 끝에 사무관이 되었고, 잠시라도 다른 분야의 업무를 통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되면 세상이 넓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듯, 신임 사무관 분들도 이번 체험을 통해 서점에 갈 때나 책을 볼 때면 한번쯤 지금의 시간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경험과 기억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운정 jody_lee@gopacom.com



2014년 pacom 낚시 동호회

6월 7일 시화 방조제 봉아머리 선착장 오전 6시 30분, 직원들은 배고동 소리와 함께 바다 낚시를 향해 출발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더니 예년보다 많은 인원이 모여 배는 2척(20인승, 10인승)이 출항하였다. 이날은 물때가 좋아 고기가 많이 잡힐 거라는 선장님의 말씀도 있었다.

인근 피출소 순경이 도착해 인원 피약을 하고 안전 조끼를 입은 상태 확인 후 1시간 이상을 떠나 머무른 곳은 서해안 어느 한 곳이었다. 스마트폰으로 위치 확인했더니 바로 서해 당진 앞을 가리킨다. 잠시 머무르는 사이 바다에서 아침 향을 맡으며 배에서 끓여 먹는 라면과 소주 맛은 바다낚시를 해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누가 먼저 고기를 낚을까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로 배테랑이라 자랑하던 칠나, 조성길 상무님이 먼저 시작하였다. 제법 큰 고기가 잡혔다. 이제부터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낚시대와 바다로, 고기가 잡히면 옆에서 “와~” 하고 소리 치며 감탄하기도 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잡은 바다고기를 직접 회를 떠서 소주와 함께 먹으니 이 또한 맛 본 사람만 알 수 있단다. 잡지 못하고 먹는 사람의 속은 쓰리다.

인쇄사업본부의 낚시 달인 김기재 대리와 이재훈 기장은 낚시대를 바다 속으로 드리우기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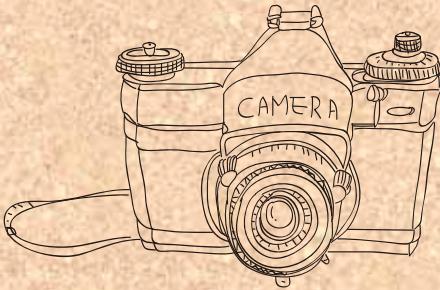


하면 후다닥 큰 고기, 작은 고기 할 것 없이 수없이 잡아 올린다. 점심은 역시 매운탕과 함께다. 정말 맛있다.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꿀맛이라 할까?
점심은 먹은 후, 많이 잡은 사람의 여유 만만과 잡지 못한 사람의 각오와 함께 다시 바다 낚시를 시작했다. 오후 1시 반쯤 드디어 마지막으로 한 분이 이제껏 잡지 못한 큰 고기를 세 사람과 깽깽대며 잡아 올렸다. 정말 큰 고기여서 모두 몰려와 사진을 찍고 그 옆에서 다양한 포즈도 취했다. 이제 바다 낚시의 흥을 알겠다. 배가 물결과 함께 넘실대는 가운데 고기를 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이 즐거움!

오후 3시까지의 여정을 흰한 웃음으로 마무리하며 누가 잡은 고기가 어떻다 수다도 떨면서 바다고기 회를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복귀하였다.

이원성 kothi@sipk.co.kr





찰칵소리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사진을 보내 주세요.

E-mail : suhee5336@nate.com





PACOM NEWS

생산관리 workshop



지난 4월 4일에는 새롭게 인원 조직을 구성한 생산관리부서가 팀워크를 다지기 위한 단합대회를 대천 한화콘도에서 실시하였다. 조성길 상무이사와 안명철 본부장의 진행 속에 각자 임무와 문제점 등을 도출하고 개선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익일에는 신탄진에 있는 한솔아트원 공장을 견학하면서 종이가 생산되는 진행과정을 설명 듣고 돌아왔다.

봄맞이 공장 대청소 실시



팩컴 군포공장은 지난 4월 8일 봄을 맞이하여 직원 전체가 공장 내부 및 외부, 유리창 등 대청소를 실시하였다. 올해로 두 번째 실시하는 전체 대청소의 날로 평소 손이 닿지 않는 부분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겨우내 쌓여 있던 묵은 때를 털어 내는 직원들의 모습은 한결 가벼웠다. 또한 이날 대청소를 주관한 관리본부는 향후 봄(4월 첫 주 화요일), 가을(10월 첫 주 화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대청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직원 생일자 행사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직원 생일자 행사를 주관하는 관리본부 그리고 식당을 운영하

는 (주)ecmd에서는 회사에서 축하하는 직원들의 생일자 행사를 더욱 뜻 깊고 의미 있게 치르기 위해 향후 6회에 걸쳐 매월 세계 가정식 요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첫 번째로 시작된 5월 생일자 행사에서는 치킨코든브루와 달팽이허브소스가 메인으로 준비된 프랑스요리, 6월 생일자 행사에서는 두 가지 소스를 곁들인 수제แฮ박스테이크가 메인으로 준비된 아메리칸 요리를 선보였고 생일을 맞이한 직원들은 새로운 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오는 7, 8월에는 어느 나라 요리를 선보일지 기대가 된다.



명지대학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팩컴 공장 견학



지난 4월 15일에는 매년 견학을 오는 명지대학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담당: 한종인 교수) 2학년 학생 40여 명이 당사를 견학했다. 회사 강당(식당)에서 생산관리부 김희수 차장의 설명으로 인쇄의 개요 및 인쇄기기 및 편집 CTP로 이어지는 현황 등을 경청한 후, 당사의 각 충별 온라인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는 현장을 2시간 이상 세밀히 집중하여 견학하였다. 졸업 후 이들이 잠재 고객으로 다시 찾아오는 경우도 있는 바, 김희수 차장은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열심히 설명을 하여 재미있

는 목소리 톤으로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근로자의 날 특식



지난 5월 1일(목)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점심 시간에 삼겹살 파티를 열었다. 올해는 5월 2일 교환근무(휴일)를 실시하여 모든 직원들이 출근을 했는데 직원들은 계단에서부터 솔솔 날아오는 철판 삼겹살 향을 맡으며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였다. 특히 삼겹살에는 빠질 수 없는 채소가 상추인데 일부 직원들은 올해 새로이 식당 옆 잔디밭을 조성한 후, 화단에 손수 키우고 있는 상추를 따다 먹기도 하여 야외에서 삼겹살을 먹는 기분을 만끽했다. 근로자들의 전체 생일날 철판 삼겹살로 푸짐하게 식사를 하며 활짝 웃는 직원들의 모습은 다른 회사로부터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정도였으며, 특별한 날 힘의 원동력이 되었다.

신임 사무관(5급) 중소기업 현장 근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짚어질 중앙 부처 신임 사무관 8명이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4 일간 우리회사를 방문하여 중소기업 현장 근무를 체험했다. 이로써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 현장 근무가 실시되었다. 신임 사무

PACOM NEWS

관들은 중앙 공무원 연수과정 10개월의 교육 과정 중에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방문하여 첫날부터 인쇄사업본부의 윤전팀과 제본사업본부의 포장, 재단, 양장 공정에 투입되었고 하루 8시간씩 4일간을 직원들과 같이 보냈다. 쉬는 시간에는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처음 직원들과 일 할 때는 공무원이란 신분 때문인지 조금 서먹 서먹하고 딱딱한 느낌이었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신임 사무관들은 현장에 있는 직원들과 어울리며 형님, 어머님 등의 친근한 단어로, 또한 우리 직원들은 동생, 자녀들과 일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즐겁게 땀 흘렸다. 마지막 날은 조성길 상무님과의 미팅으로 4일간의 현장 경험담을 이야기 나누며 마무리 하였다

14일 기업 특별 토익시험 실시



지난 6월 14일에는 미리 공지한 대로 사무직 직원 및 희망 직원에 한하여 기업 특별 토익 시험을 회사 구내 식당에서 실시하였다. 토요일 아침 9시 기관 심사관 입회 하에 시험을 치렀고, 성적 우수자 6명에게 포상금 180만원이 지급되며 부서 평가, 개인 평가, 인사 평가, 해외 연수 기회 등에 반영된다고 한다.

팩컴그룹입사



2014년 2/4분기에 입사하여 팩컴 그룹의 가족이 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왼쪽부터 제본사업본부 배창현, 생산관리부 모영길, 정비부 박영식

결혼식 – 김인선 대리, 안병욱 사원

“행복하세요~”



지난 6월 28일 같은 날, 회사 직원 2명이 화촉을 올렸다.

먼저 오후 2시 생산관리부의 김인선 대리가 4녀 중 네 번째로 집안의 결혼식 마무리를 했다. 김인선 대리는 야구장에서 만남을 이룬 신랑 한주호 군과 서울 서초동 양재동 라비아 컨벤션 패션관에서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직원들의 축복 속에 백년가약 화촉을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에는 경기도 수원 마이칸벤션 웨딩홀에서 경영기획부의 안병욱 사원이 결혼식을 올렸다.

안병욱 사원은 신부 송은 양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끌려 두 달 여 동안 퇴근 후 집 앞에서 기다리며 연애를 시작하였으며, 3년 간의 연애 시절을 마감하며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직원들의 축복 속에 백년가약 화촉을 밝혔다.

자녀 출산 – 하상진 대리, 정정례 사원,

박수엽 사원 “축하드립니다!”



제본사업본부의 하상진 대리는 지난 5월에 귀여운 둘째 자녀 하동민 군이 가족의 사랑 속에 태어났으며, 제본사업본부의 정정례 사원은 지난 5월 친손자 “주완” 이를 보아서 할머니가 되었으며, 안산공장 박수엽 사원도 귀여운 손녀를 보아서 할머니가 되었다고 한다.



박수엽 사원의 손주

정정례 사원의 손주

공지사항

하계 휴가 일정

- 1) 인쇄사업본부 및 PREPRESS사업부
2부제 근무자

2014년 7월 31일(목) ~ 8월 5일(화)

- 2) (1)의 부서를 제외한 전 부서

2014년 8월 1일(금) ~ 8월 6일(수)

금연 절주 운동

매년 봄에 시작한 금연과 절주 캠페인을 올해는 선선한 가을 9월부터 군포 보건소의 협조 아래 9월 1일부터 실시

대사증후군 검사 : 10월부터 매주 수요일, 입사순으로 검사 및 상담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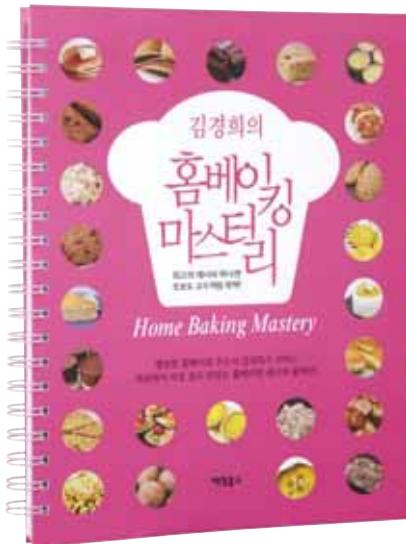
이원성 kothi@sipk.co.kr



행복한 홈베이킹 전도사 김경희가 전하는
세상에서 가장 쉽고 맛있는 홈베이킹 레시피 콜렉션!

계량컵 하나로 쿠키에서 케이크까지, 초보도 어렵지 않아요!

현직 외교관의 아내 ‘김경희’씨가 쓴 홈베이킹 완벽가이드!



팩컴북스

www.pacombooks.co.kr
다음블로그 blog.daum.net/pacombooks
트위터 @pacombooks
김경희 저음 | 가격 15,000원



Home Baking Mastery

[다른 디저트 책과 차별이 되는 이 책만의 특징]

홈베이킹 재료와 레시피 기준을 계량컵으로 간편하게!

기존의 홈베이킹 책은 레시피가 대부분 그램(g)으로 표기되어 정밀성을 놓아는 만들기 어려워 디저트 만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 책은 케이크를 자주 만드는 서구와 같이 계량컵과 계량스푼으로 누구나 쉽고 실용적으로 만들게 하였다. 계량컵도 미국식(1컵이 240ml)과 한국/일본식(1컵이 200ml)을 매 레시피마다 각각 수록하여 혼동이 없게 하였다.

쉽게 후다닥 나만이 할 수 있는 검증된 안심 레시피 수록!

복잡해 보이는 쿠키 케이크 디저트도 이미 검증된 상세한 진행 순서 사진으로 소개함으로써 초보자도 이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누구나 같은 맛을 낼 수 있고 성공적인 디저트를 만들 수 있다.

너무 단 디저트, 방부제 들어간 디저트는 이제 그만!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건강하고 착한 레시피!

외교관의 아내인 저자가 프랑스, 미국 등 베이킹 본고장에서 배운 맛있는 레시피만을 엄선하되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당도의 맛으로 개선했다.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은 건강한 디저트를 손수 만들고 싶어 하는 어린 아이를 가진 엄마들에게 희소식!